

해양 표준의 전문가, 한국해양대 학생들을 만나다

IEC e-tech 6월호에 소개된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의 표준화 지식



▲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방문했던 중국 상하이 시 전경.

지난 5월, IEC 중앙사무국의 찰스 자크마트(Charles Jacquemart)기술위원은 TC 82 총회 참석차 중국 상하이 시를 방문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토요일 아침, 우연히 갯 연습선에서 내린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을 만났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찰스 위원은 그들이 IEC 뿐만 아니라 국제 해양 표준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연습선 해마(Hippocampus)는 지난 5월 11일 상하이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했다. 상하이 해양대학교와의 교환 방문을 위해서였다.

한국 해양대학생의 IEC 표준화 지식

찰스 위원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는 6명의 여대생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그는 상하이 방문 이유에 대해 묻는 것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곧 그들이 해양대학교 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찰스 위원은 학생들에게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에 대해서 아는지 물었다. 그들은 당연하다고 답했고, 찰스 위원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혹시 IEC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찰스 위원은 그들이 가진 지식에 매우 놀랐다. 학생들은 IEC TC 80의 국제표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해양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화는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과 관련이 있는 IEC 61097에 대한 주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찰스 위원은 한국 대학이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매우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감탄했다. 찰스 위원은 학생들에게 IEC TC 80 회의가 올해 말에 열리는 IEC 총회에서 개최된다는 정보를 주기도 하였다. 😊

